

2010학년도 서울교육대학교 정시모집 논술 문제

－ 답안 작성 시 유의 사항 －

- ☒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1,400자 내외로 작성할 것.
- ☒ 제목은 쓰지 말고 본문부터 작성하며 제시문을 그대로 옮기지 말 것.
- ☒ 답안지에 불필요한 표시를 하지 말 것.

수험번호	
성명	

감독관확인



서울교육대학교
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

문 제

※ <보기>에 제시된 A~D를 참조하여 (1) 제시문 (가)와 (나)의 관점을 비교하고, (2) 그 중 하나를 정당화한 후, 그 관점이 미래 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논하시오.

<보 기>

A

세계 각국에서 한파와 폭설, 그리고 폭우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. 기상 전문가들은 기상 이변의 기저에 '지구 온난화'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. 실제로 지난해 11월 지구의 월평균 기온은 20세기 평균보다 0.6도 높았다.

(중략)

온난화는 전 지구적인 에너지 순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각종 기상 이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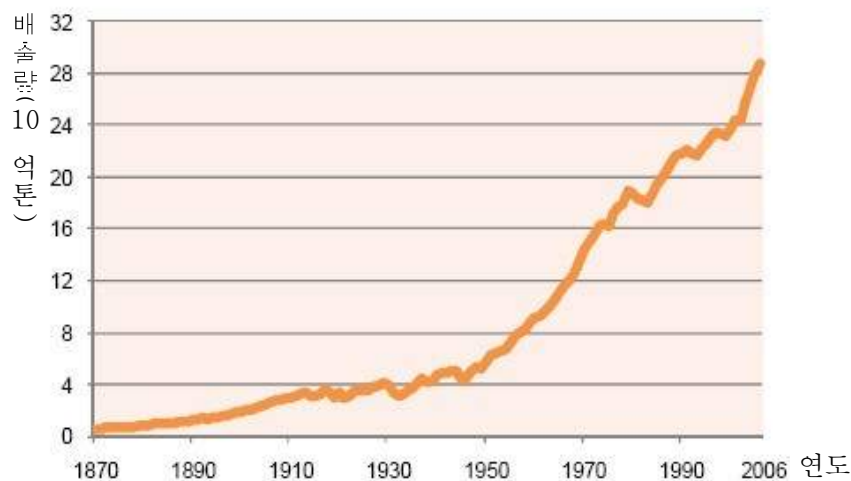
세계 각국의 한파·폭설·폭우 피해 현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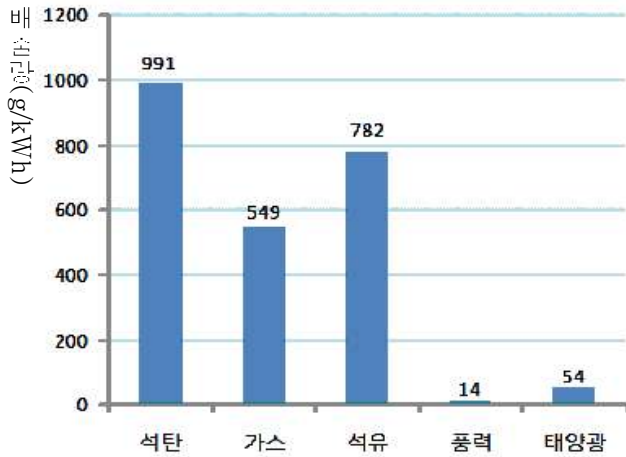
- 매일경제 (2010. 1. 10)

B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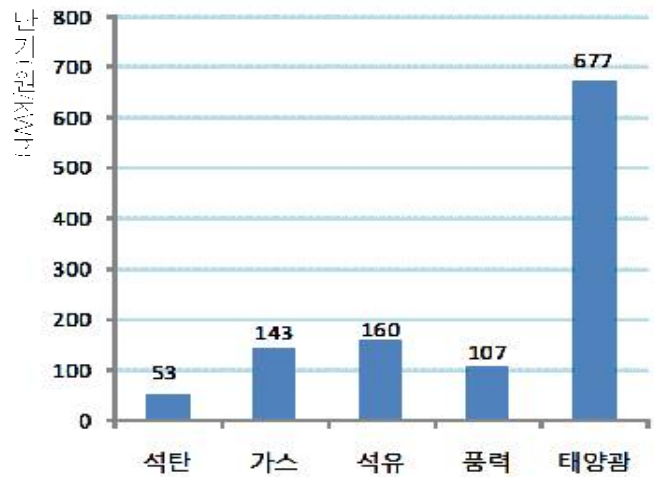
화석연료 연소에 따른 연도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(국제에너지기구, 2009)



C 단위 발전량당 이산화탄소 배출량
(한국전력, 2008)



D 에너지원별 발전 단가
(한국전력, 2008)



(가)

청정에너지의 경제 체제를 제대로 구축하려면 향후 3년간 대체 에너지 생산을 두 배로 증대해야 할 것이다. 우리는 연방 건물들의 75% 이상을 현대화하고 2백만 미국 가정에서의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여 소비자나 납세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것이다. 이러한 과정 속에서 태양 전지판이나 풍력 터빈을 만드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고, 연료 효율이 좋은 차나 건물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. 또한 신 성장 에너지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보다 더 다양한 직업들이 생겨나고, 에너지가 더 절약될 것이며, 나아가 지구가 더 깨끗하고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을 것이다.

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, 『조지 메이슨 대학 연설문』에서

(나)

라다크에 온 지 오래지 않아 나는 개천에서 옷을 빨고 있었다. 세탁할 옷을 물에 담근 순간 개천 위 마을 쪽에서 일곱 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소녀가 내게 다가왔다.

“여기서 빨래하면 안 돼요.”

수줍은 목소리의 그 소녀는 손으로 개천 아래의 마을이 있는 쪽을 가리켰다.

“아랫마을 사람들이 마시는 물이에요.”

“빨래는 저 위쪽에서 하면 돼요. 그 쪽 물은 밭으로 흘러 들어가는 물이거든요.”

(중략)

라다크 사람들은 어떤 것도 그냥 버리지 않는다.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것이라면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고 연료로 쓸 수 없는 것들은 비료로 쓰는 것이 라다크 사람들이다. 그런 식으로 아주 오랜 세월 모든 것을 재활용하면서 열악한 자원만을 가지고 라다크의 농부들은 거의 완벽한 자립을 이룰 수 있었다. 외부 세계에 의존하는 것이라고는 소금과 차 그리고 요리 기구나 공구 같은 금속 제품들뿐이다.

— 헬레나 노르베리-호지, 『오래된 미래-라다크로부터 배우다』에서